

- 이사오고 싶은 천안 동남구를 위한 변화하는 학교정책 -

의 정 토 론 회

- 일 시 : 2018. 12. 19.(수) 14:00
- 장 소 :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
- 주 최 :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의회

의정토론회 개요 및 흐름

토론회 개요

- 일 시: 2018. 12. 19.(수) 14:00 ~ 16:30
- 장 소: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 5층
- 주 최: 충청남도의회
- 주 제: 이사오고 싶은 천안 동남구를 위한 변화하는 학교정책

진행 흐름

시 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		
< 개 회 식 >				
14:00	14:05	5′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 : 정책지원팀장
14:05	14:30	25′	내빈소개, 개회사, 축사 등	한영신 의원
< 토 론 회 >				※ 좌장: 한영신 의원
14:30	15:00	30′	주제 발표 ▶ 박찬석/ 공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 모두가 살고 싶은 천안 동남구 원도심을 위한 학교정책	
15:00	16:00	60′	지 정 토 론 ▶ 김준표/ 용소초등학교 교장 ▶ 양은선/ 동남구 녹색어머니회 회장 ▶ 안동순/ 천안시 도시재생과장 ▶ 김현숙/ 청수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정명근/ 정명근미래교육연구소장 ▶ 이병례/ 충남도교육청 학교교육과 장학관	토론자 전체
16:00	16:25	25′	종 합 토 론	참여자 전체
16:25	16:30	05′	정리 및 폐회	좌장(한영신 의원)

목 차

■ 주제발표

- ☞ 모두가 살고 싶은 천안 동남구를 위한 학교정책 1
박찬석(공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 지정토론

-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방안 17
김준표(용소초등학교 교장)
- ☞ 모두가 살고 싶은 동남구를 위한 학교정책 21
양은선(동남구 녹색어머니회 회장)
- ☞ 이사오고 싶은 천안 동남구를 위한 변화하는 학교정책 23
안동순(천안시 도시재생과장)
- ☞ 이사오고 싶은 천안 동남구를 위한 변화하는 학교정책 25
김현숙(청수고 학부모회 회장)
- ☞ 변하지 않는 교육, 이대로는 안된다 29
정명근(정명근미래교육연구소장)
- ☞ 충남 다문화교육 정책과 천안 동남구 다문화교육 특성화 방안 35
이병례(충남교육청 학교교육과 장학관)

주제발표

모두가 살고 싶은 천안 동남구 원도심을 위한 학교정책

박 찬 석

(공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모두가 살고 싶은 천안 동남구 원도심을 위한 학교 정책

공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박 찬 석

1. 천안 동남구의 외국어교육특구 및 특성화 교육의 독자 브랜드화

○ 천안 동남구는 교육 도시로서의 독자적인 교육브랜드 가치 창출

- 선도적 창의적 외국어 및 외국인 관련 지성교육 실시
- 교육발전 요구에 대한 주민 · 학부모의 교육만족도 향상 필요
-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경쟁력 강화
- ‘외국어교육의 특성교육지정을 통한 창의적 세계 시민의 육성’으로의 실천
- ‘외국어교육 인재 양성을 통한 다문화 특화와 세계시민육성’
- 각 학교에 특성에 맞는 특성화 교육의 발굴과 지속적 실시에 중점을 주어야 함.

<표 1> 발전적인 천안 동남구 교육도시사업 혁신 과정 진행논의

단계목표	교육혁신 모색기	교육혁신 실험기	교육혁신 정착기
전술목표	- 교육혁신에 대한 인식 변화	- 교육혁신에 공동체 문화인 공유 - 교육과 공동체 문화의 융합	- 한국 교육의 패러다임의 변화 - 복지와 공동체 문화 질적 고양을 통한 교육혁신의 완성
동남구 외국어 특화교육	- 충남 교육청 및 천안 교육지원청과의 업무협약 - 외국어 특화 교육지원센터 설립 - 교사, 학생, 학부모, 교수를 통한 교육혁신의 리더그룹으로 배치	- 교육과 공동체 문화의 융합을 위한 콘텐츠 개발 - 학생, 교사, 학부모의 역할강화 프로그램 - 지속가능한 외국어 교육환경 변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 외국어 및 다문화 교육의 확충 - 복지확충과 공동체 문화 혁신을 통한 외국어 교육의 질적 변화 모색 - 학교와 마을의 융합적 교육시스템 구축 - 천안 동남구 중심의 교육 혁신모형의 확립
특성화 교육 발굴	- 천안 동남구 만의 특성적인 생존 수영 연구 학교 - 운동 및 체육 강화 학교 - 농촌 체험 생활학교로 자체 특성화 구축	- 조기 생활 체육인 육성을 초, 중, 고에서 특색 있게 추진함 - 인성 함양을 위한 농촌 체험 생활 학교 육성으로 적극적인 동남구 소수 인원의 학교들의 자체 경쟁력 강화	- 천안 동남구 형 학교의 모형 강화 - 학교 예산의 교육 특구 및 특색 사업의 지속적 지원 및 안정적 발판 구축

- 천안 전체가 외국어 교육특구로의 변화와 외국어 및 포함한 다양한 특화 교육의 실시
 - 다중 언어 이해 교육
 - 다문화 교육
 - 외국어교육
 - 세계시민교육
 - 스포츠 교육
 - 농촌 체험 교육
 - 천안 시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실시
 - 외국어 특화교육에 대한 강력한 협조 필요

- 동남구의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적 인식의 강화
 - 교육적 성과의 지속화
 - 학교와 지역적 다양한 구성원 간의 활동 추진
 - 추진 방향에 대한 평가지표 분석을 위한 실적자료강화
 - 교육혁신모색기->교육혁신 실험기로의 교육혁신 정착기 진입
 - 충남교육청 · 천안교육지원청, 충남 동남구의 교육지원팀 협조 절실

- 전체적인 협조와 융합을 통해 천안 동남구 외국어 특화 사업
 - 보다 나은 교육적 혁신
 - ‘외국어 교육 인재 양성을 통한 다중 언어 이해 및 다문화 특화와 세계시민육성’ 운영필요
 - 외국어 능력과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 교육 정상화
 - 학교 체육의 특성화를 통한 전반적인 생활 체육인의 육성
 - 농촌 체험 교육을 통한 도농간의 유대 공동체의 건설을 가능하게 전개함

2. 천안 동남구 교육도시를 위한 교육공동체의 결속 필요

- 외국어 함양 교육의 실시
 - 외국어교육을 위한 천안 동남구 외국어 교육 체계 확립

- 천안시가 주도하는 외국어 도시로의 교육공동체로의 역할
- 외국어 교육 연대 사업을 강화하는 기초를 제공효과를 기대
- 외국어 강화를 위한 교사의 위상과 교육적 환경에 따른 교육과정 논의
- 동남구 관내의 학교가 외국어 능력과 화상을 통한 외국 학교와 결연이 이루는 연결효과 기대

○ 구성원들의 다양한 논의와 천안 외국어 특구 및 동남구 자체의 특성화 교육의 구성과 공유

- 다중 언어 이해 교육의 강화
- 다문화 교육
- 관내 유치원, 초, 중, 고, 대학을 통해 다양한 다중 언어 이해 교육 및 다문화 이해 교육 목적에 강화
- 천안 동남구 원도심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과 관심
- 천안 동남구 관내 소재 외국인 공무원들을 지원 육성하여야 할 것임
- 천안 동남구 소재 초, 중, 고에서 스포츠 및 농촌 체험 학교의 육성

○ 지역교육청과 지자체, 교육부, 정부기관의 천안교육교류 증진 효과를 강화

- 천안 동남구의 도시 교육을 실시
- 사려 깊은 교육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완
- 지역교육청, 지자체, 교육부와의 정부의 공조를 강화
- 외국어 특화 교육 사업은 교육관련 네트워크를 강하게 구성하여 공감
- 천안 동남구과 천안 서북구를 연결하는 교육적 진척과 전수를 추진 필요

3. 천안 동남구의 외국어 교육도시 사업을 위한 실질적 거버넌스 구축과 실천 노력 필요

○ 그 동안의 ‘천안 외국어 특화 사업’을 발전적 검토

- 학교와 지역사회가 긴밀한 연계
- ‘천안 동남구의 세계시민적 창의인재’ 구성 노력

- 이를 통해 천안 동남구 원도심 소재 학교교육을 활성화시키고 마을 공동체 교육을 활성화하는 계기 마련

○ ‘글로벌도시 천안 동남구 원도심 모델’을 구안

- 지역사회의 산업과 경제 창출되는 역사를 이루는 데에 활용
- 세계시민인재가 ‘국제적 위상을 갖춘 능숙한 외국어를 구사하는 세계시민 교육모델’을 구성필요
- ‘천안 동남구 외국어 및 다문화 그리고 세계시민을 위한 창의적 교육모델’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실시

○ 동남구 자체의 센터를 통해 바로 4차 산업의 사례를 제시

- 학교에 도입하기 위한 노력 강화
- 천안 동남구의 외국어 교육 특화 구성을 재검토
- 도시 전체가 다문화, 외국어, 세계시민의 가버넌스 타워를 구축
- 외국어 교육도시로 천안 동남구의 외국어교육의 도시적 입장을 정립

천안 동남구지역의 다문화 관련학교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천안 동남구의 다문화 관련학교 현황¹⁾

다문화 관련학교	다문화 관련학교 현황
다문화 유치원	천안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다문화 예비학교	신부초등학교 신촌초등학교
다문화 중점학교	병천 초등학교 일봉초등학교 행정초등학교
다문화 연구학교	지정 필요

- 천안 동남구지역의 다문화 관련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다문화 유치원 1개원, 다문화 예비학교 2개교, 다문화 중점학교 3개교가 있으며 다중 언어 교육 및 다문화 연구학교를 지정 실시할 필요가 있음

1) 중앙다문화 교육센터. 네트워크

- 천안 동남구 내의 외국어 및 창의성을 갖추도록 하는 기초마련
 - 다문화 전문가, 외국어 전문가, 세계시민 전문가를 활용
 - 각 학교에서 다문화, 외국어, 세계시민 육성 특화 가능방안을 구성
 - 다양한 체험활동 기술을 통해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기회 제공

3. 천안 동남구의 특성화 교육도시 사업을 위한 실질적 실천 노력 필요

- 국제규격 수영장을 건립하여 천안초-수영 집중 지원, 주변 중고등학교는 수영 및 생존 수영 관련 특색 사업을 강화함
 - 남산초는 야구, 희망초는 농구, 중앙초는 다문화 다중언어 등에 관심을 강화하여 천안 동남구를 특성화 교육 중심으로 지속적 발전을 도모함
 - 이 밖에도 천안 흥타령 축제와 연계하여 댄스, 승마 및 스케이트 등의 특성화 학교 육성을 적극 검토.
 - 학교 불균형 문제와 원도심 학교 활성화 해결 방안은 천안을 둘러싼 교육계의 지속적인 견해와 추진의지에 달려 있음.
- 4차 산업과의 연계, 천안 동남구 교육 중심으로 강화
 - 천안 동남구가 사람이 먼저인 도시로의 전환
 - 이를 강화하려면 인공지능(AI) 정보통신 기술을 통한 외국어 활성화 교육 강화
 - 아울러 학생들의 자긍심과 학교 만족도확대를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로서 학교 내의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외국어 성장의 길 제시
 - 지역 NGO가 동참과 지역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대학진출, 산업화를 위한 살아 움직이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하여야 함.
 - 기존의 창의교육 사업으로의 확대노력과 동시에 도농복합형, 교육적 환경 등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방향을 찾아야 함.

국내 다문화 학생 자녀의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국내 다문화 학생 자녀 증가 추이²⁾

년도	다문화가정 자녀 수	증가율
2014	67,806	21.6%
2015	82,526	21.7%
2016	99,187	20.2%
2017	109,387	10.2%

- 매년 다문화 학생 자녀의 증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에 대한 관심과 확대 필요

○ 천안 동남구의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추구

- 외국어 교육도시 전략 구성 필요
- 교육 강화 공동체를 확대 추진할 수 있는 기초마련
- 각 지역적 특성에 맞는 ICT와 문화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
- 농촌지역은 자연, 농업, 예술 등을 지역적 여건에 맞는 다문화, 외국어, 세계시민적 활동을 통한 교육적 환경을 특화필요

4. 천안 동남구 외국어 교육도시사업의 시민적인 교육 문제에 대한 인식 강화와 실천

○ 천안 동남구 교육도시사업은 학교와 사회를 통한 공동체 역할중심

- 구심점을 동남구청과 천안교육지원청의 동남구 센터 마련
- 교육 사업으로 학교와 교육청과의 맥락 중요
- 효율적 교육업무를 통한 센터의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 마련

2) 중앙다문화 교육센터. 통계자료

○ 유, 초, 중, 고의 외국어 특성화 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 문제적 접근은 지속적 진행
- 학교 안 밖의 지역사회와 함께 연계되는 부분을 강조와 실천적인 창조활동 확장

천안 동남구지역 학부모의 교육환경 만족도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천안 동남구지역 학부모의 교육환경 만족도(공교육)³⁾

구분		매우 불만 족	약간 불만 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종합		평균(5점)	평균(1 0점)
							불만 족	만족		
전체		8.5	18.6	50.5	20.1	2.7	27.1	22.9	2.90	4.75
연 령 별	20대	50.0	-	40.0	10.0	-	50.0	10.0	2.10	2.75
	30대	6.5	18.6	44.1	27.1	3.6	25.1	30.8	3.03	5.07
	40대	5.7	20.3	52.0	19.3	2.7	26.0	22.1	2.93	4.83
	50대	13.3	15.0	55.8	14.2	1.7	28.3	15.8	2.76	4.40
	60대 이상	48.0	8.0	44.0	-	-	56.0	-	1.96	2.40
가 구 소 득 별	100만원 미만	25.0	-	33.3	33.3	8.3	25.0	41.7	3.00	5.00
	100-200만 미만	14.3	12.9	54.3	15.7	2.9	27.1	18.6	2.80	4.50
	200-300만 미만	7.5	19.0	51.7	19.5	2.3	26.4	21.8	2.90	4.76
	300-400만 미만	9.6	18.3	46.8	22.5	2.8	28.0	25.2	2.90	4.76
	400-500만 미만	4.4	27.0	48.0	18.1	2.5	31.4	20.6	2.87	4.68
	500만원 이상	9.3	14.0	53.0	20.8	3.0	23.3	23.7	2.94	4.85
직 업 별	전문/관리	8.7	17.4	47.8	19.6	6.5	26.1	26.1	2.98	4.95
	사무직	6.0	21.4	45.3	25.6	1.7	27.4	27.4	2.96	4.89
	서비스/판매	8.4	17.4	53.4	19.7	1.1	25.8	20.8	2.88	4.69
	농/림/어업	-	15.4	61.5	15.4	7.7	15.4	23.1	3.15	5.38
	기능/단순노무	6.7	18.8	55.2	17.6	1.7	25.5	19.2	2.89	4.72
	주부	12.5	18.5	44.9	21.3	2.8	31.0	24.1	2.83	4.58
	무직/기타	7.7	23.1	46.2	15.4	7.7	30.8	23.1	2.92	4.81

- 전반적으로 천안 시민들은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며 이유로는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

3) 충청남도 『2017 천안 사회지표』, p. 50.

○ 초·중·고 학부모의 교육환경 만족도

- ‘공교육’에 대한 만족이 22.9%로 ‘사교육’에 대한 만족(21.7%)보다 높게 나타남
- 학생의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6.48점이며, 특히 ‘교우 관계’ 만족도가 7.64점으로 가장 높음
- 2016년 기준 천안의 ‘취학률’은 99.1%로 충남 평균(98.5%)보다 0.6%p 높게 나타남⁴⁾

○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만족도를 올려주는 노력이 필요

- 학부모 연령대가 연소하거나 연장일 경우가 교육환경 만족도가 높음
-> 복지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
- 가구 소득별 구분을 보면 소득이 지나치게 낮거나 높을 경우에 불만족 높음
-> 이러한 차원에서 다양한 학교의 존재가 필요
- 직업별의 경우는 서비스/판매, 기능/단순노무, 주부 및 무직/기타의 경우에서 불만족 요소가 많이 나타남
->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는 보다 정확한 학습과 직업적 논의를 잘 파악할 수 있는 학습의 방안모색

천안 동남 · 서북구의 인구비율은 <표 5>와 같다.

< 표 5> 천안 동남 · 서북구의 인구비율

기준	동남구 인구	서북구 인구	천안시 인구
2018년 10월	270,451명 (40.2%)	402,190명	672,641명

- 천안 동남구의 인구는 천안시 인구의 40.2%를 차지하고 있다.

4) 충청남도 『2017 천안 사회지표』, p. 7.

천안 동남구 · 서북부 학교 수와 학생 수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 표 6> 천안 동남·서북부 학교 수와 학생 수

	교육기관	동남구 소재 학교 수와 학생 수	서북구 소재 학교 수와 학생 수
유, 초, 중.	유치원	공립32개교 958명 사립21개교 3,208명	공립23개교 1,069명 사립34개교 5,582명
	초등학교	38개교 15,771명	36개교 23,321명
	중학교	공립11개교 7,151명 사립 5개교, 2,227명	공립14개교 9,495명 사립 2개교 391명
고 등 학 교	일반계국립고	공립 4개교 4,608명	공립 6개 7,123명
	방송통신고	공립 1개교 319명	
	일반계사립고	사립 3개교 2,872명	
	특성화고	공립 3개교 3,170명 사립 2개교, 1,437명	사립 1개교, 1,213명
	자율공립고		공립 1개교, 1,047명
	자율사립고	사립 1개교, 1,100명	
	특수목적고		공립 1개교 469명
	기타(특수)학교		사립 2개교, 385명
대 학	대학교	단국대학교 호서대학교 백석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1캠퍼스 상명대학교 선문대학교 고신대학교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 남서울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2캠퍼스

5. 동남구 원도심 교육을 살리는 길

○ 천안지역 동남구의 원도심 교육활성화를 강화

- “천안지역 원도심에 있는 학교와 신도시에 있는 학교의 불균형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천안교육청의 접근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원도심 학교 활성화 정책에 적극 반영

○ 천안 지역 내 서북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는 스쿨버스를 운영할 필요

- 20분 내로 접근성을 높인다면 동남구의 비어가는 학교의 불균형 해소

- 원도심 학교시설과 대학 등 기타 좋은 인프라형성
 - 초등학교부터 특성화교육을 지속적인 실시로 경쟁력을 높임
- 도교육청 관계자 및 천안교육지원청은 천안지역 동남구 원도심에 있는 학교와 신도시에 있는 학교의 불균형 심각성을 인지
 - 특성화학교 중요성에 공감하며 일부라도 시행이 가능한 부분 적극 검토
- 정원 50인 이하 학교 통폐합 추진보다는 각각에 맞는 특성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소규모 특성화 학교의 사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농촌 소규모 학교-> 스마트 팜 학교 전형을 만듦, 지속가능발전 가능성 전개할 학교 구성,
 - 적극적으로 작은 학교의 활용방안모색과 특성화학교 추진
 - 운동부 있는 학교 적극지원
 - 다문화 특성화 학교로의 전환 모색
- 원도심과 신도시, 도심과 농촌의 균형 발전이 이 지역의 가장 큰 현안
 - 지역생활과 밀접한 교육 지역 역점사업을 강화
 - 천안시 원도심과 낙후한 동부 6개 읍·면 활성화
 - 시민들이 ‘반드시 이사 오고 싶은 곳’으로 변화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도심 초중고에 대한 특별지원법을 제정
 - 초등학교 학생에게 일대일 맞춤형 교육을 통해 다른 지역에서 학부 모들이 이사 오고 싶은 원도심
- 일대일 맞춤형 교육에 필요한 전문교사 인력이 필요
 - 특별지원법 제정필요
- 에티켓 교육을 천안의 초중고 정규과목에 지역 교육의 특색화
 -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에티켓 교육을 추상적이 아닌 매우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국민 에티켓을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 이 속에서 배려, 교양 등 기본적인 민주시민 의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할 수 있다

- 천안의 특성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 자체의 안정적인 입장을 강화하려 할 것임
 - 국공립학교의 교장 임기제로 인한 전출 시 전반적인 교육 기조가 바뀌는 것을 최소화하는 필요 있음
 - 특성화 교육의 지속적 안정적 유지를 교육청은 보장할 필요가 있음
 - > 교육 특구 및 특성화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교육적 행정적 지원을 통해 확대 필요
- 천안 동남구의 학교 특색 사업을 확장하여 지속적인 학교 발전 전략 확충
 -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일치단결하여 교육 특구 사업과 특성화 사업에 관심을 두며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학교장 및 학교 교직원, 학부모, 학생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담보한 신청을 이루어지도록 독려하며, 이를 통해 학교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6. 교육적 대안을 위하여

- 천안 동남구 만의 모델 구축하여 학교 환경을 구성
 - 천안시의 도시발전이 1990년대 ~ 2000년대에 급격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역사성이 있는 오래된 학교 적음
 - 천안시 중학생들의 학력은 대체적으로 서고동저로 요약
 - > 동 단위의 시내지역을 기준으로 서부쪽 학교의 학생들이 학력이 높고 동부는 상대적으로 떨어짐
 - > 90년대 이후 천안시의 인구 확장과정에서 원도심과 가까운 동부에는 인구가 많이 늘지 않았지만, 공격적으로 택지 개발에 들어간 서부(쌍용동, 불당동, 백석동)지역에는 아파트가 대량으로 들어서면서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천안 학군이 구성
 - > 일례로, 도농복합형 천안시가 출범하던 1995년 당시 천안 서부지역의 중학교 개수는 4개, 동부지역에 7개로 동부지역에 학생이 훨씬 많았지만, 2015년에는 서부에 15개, 동부에 8개[4]
 - > 천안 불당동은 강남 8학군 다음으로 서울 이남에서 교육열이 높은 지역이 됨

- 동남구의 학교는 보다 나은 고등학교로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
 - 1995년 천안시/군 통합시 30만명 수준이었던 인구가 쌍용동의 택지 개발 및 수도권과의 교통 편의 확충 등으로 인구가 급증
 - 반대로 학교의 숫자는 충족되지 못해서 1990년대 말 ~ 2000년대 초반 천안 밖의 기타 충남 지역으로 진학 늘어남
 - 그러한 상황에서 동남구의 학교는 보다 나은 고등학교로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일반계고, 특성화고 등을 잘 유지 발전하도록 지역 주민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 이러한 향상과 진척을 위해 천안 동남구 교육을 위한 노력
 - 교육지원청 내의 동남구 다중 언어 교육지원센터개설 필요
 - 교육지원센터를 통해 다중 언어교육, 다문화 교육 기획, 연구, 콘텐츠 개발, 교수연수 및 학부모 교육 확대
 - 각 교육에 대한 전문가의 유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천안 동남구의 전문화 실시
 - 동남구 특색에 맞는 스포츠 및 농촌 체험 관련 학교의 육성을 행정 재정적으로 유지 지속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

지정토론

-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방안 17
김준표(용소초등학교 교장)

- ☞ 모두가 살고싶은 동남구를 위한 학교정책 21
양은선(동남구 녹색어머니회 회장)

- ☞ 이사오고 싶은 천안 동남구를 위한 변화하는 학교정책 23
안동순(천안시 도시재생과장)

- ☞ 이사오고 싶은 천안 동남구를 위한 변화하는 학교정책 25
김현숙(청수고 학부모회 회장)

- ☞ 변하지 않는 교육, 이대로는 안된다 29
정명근(정명근미래교육연구소장)

- ☞ 충남 다문화교육 정책과 천안 동남구 다문화교육 특성화 방안 35
이병례(충남교육청 학교교육과 장학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방안

용소초등학교 교장

김 준 표

1. 원도심 활성화 방안의 배경

최근 천안의 인구가 급팽창하고 동부와 서부의 생활권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천안시 인구의 약60%가 서부권에 거주하고 있는 가운데, 소위 원도심이라고 하는 원성동을 비롯한 원도심권은 해만 떨어지면 통행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히 줄고 거리가 한산하여 범죄의 위험마저 상존하는 지역으로 낙후되어 다양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동부권 지역의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관계 당국은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견 제시로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원도심 활성화 방안

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 원도심 중앙에 위치한 천안중앙초등학교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옛날 명성이 자자했던 학교가 현재는 학생수 부족으로 폐교직전까지 와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감안할 때 천안중앙초를 활성화하는 방안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 1) 토, 일요일 운동장에 이동식 상설무대를 설치하여 문화예술활동 전개
 - 천안시와 천안문화재단, 예총, 천안시예술단체의 지원
 - 외국인 노동자들의 참여(소통과 정보공유 공간 마련)
- 2) 학생과 시민이 어우러진 공연과 전시 및 체험활동 전개
 - 지역의 작가 및 예능인들의 참여유도(창작활동 및 경제활동 효과)
- 3) 리버마켓 운영
 - 작가들의 작품 판매(경제활동 효과)
 - 다문화 가족들의 작품전시 및 판매(다문화 가족 만남의 장소 제공)

4) 랜드마크 효과의 공원화 사업 추진

- 구교사 철거 후 개축 시 고려할 사항(시청과 교육지원청의 협업)
- 학생수에 따른 학교건물 보다는 학생과 시민 모두가 활용 가능한 복합화 건축물로 디자인 하여 활용도 제고
- 학생과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창출 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 역할의 공간 마련(연습실, 공연실, 미술관, 토론장, 사랑방, 회의장 등)

나. 장소적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곳에서도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1) 옛 명동거리의 골목을 특화거리로 조성한다.

- 다문화 거리 조성(나라별 구역 설정)
- 문화예술인 거리 조성(시지원 점포입점 및 경제활동 유발)
- 구시가지에 걸맞는 상점 입점 유도
- 지역 예술인과 유명예술인의 콜라보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의 상설화

2) 중앙시장의 개혁

- 먹거리, 볼거리, 역사 등 스토리 역사 지도 제작(찾아가는 체험)
- 중앙시장의 주야간 순환시장 전환
- 중앙시장 상점의 집적과 분산 유도
- 중앙시장 방송국 개설(정보공유, 상인들 인식개선 등)

3) 천안중앙초등학교의 지하공간 주차장화

- 중앙시장의 주차난 해소
- 천안역 지하상가와 동남구청 지하와 연계
- 천안역 지하상가와와의 활성화 도모

4) 늘어가는 폐가의 재활용

- 천안시에서 매입 리모델링 후 분양
- 청소년 이용 쉼터로 활용
- 작은 마을 도서관과 공부방으로 활용
- 어르신들의 사랑방으로 활용

다. 교육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원도심 교육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1) 원도심 학교를 교육복지우선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전폭적 지원

2) 도교육청에서 혁신형학교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관심제고(예산확보)

- 3) 도시형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여 유능한 교사 유치(농어촌과 동일)
- 4) 청소년문화공간 확보(학생들의 꿈과 끼를 연마할 수 있는 자유스러운 장소)
- 5) 학생체험학습 시설 접근성 좋은 원도심으로 유치
- 6) 학교시설 개선 특별 지원금 대폭 상향 지원
- 7) 원도심 살리기 사업에 학교교육 활성화 사업과 병행
- 8) 천안시에서 천안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교육경비보조금 대폭 확대
(시에서 지원되는 급식비를 제외한 5% 보조금 확보)
- 9) 전면적인 특성화 고등학교 전환(교육과정 특화)

3. 문제점 및 제언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몇 가지 제시하였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주차장 문제, 둘째, 시민 참여 문제, 셋째 천안시와 충청남도청의 관심과 지원 문제, 넷째, 충청남도교육청의 관심과 지원 문제 다섯째, 운영 문제 등 여러 가지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중지를 모으는 정례적인 모임을 만들어 원도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당국에서는 구도심 활성화에 성공한 지역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천안흥타령춤축제 등의 예산을 아껴서 원도심 활성화에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며, 지역장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천안의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고민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천안에는 충절의 고장답게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들과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전국 어느 곳보다 많다. 애국 선열들의 얼을 받들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이 활성화해야만 품격있는 천안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기적인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후손들에게 자랑스런 문화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이기도 하다. 당국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원도심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모두가 살고 싶은 동남구를 위한 학교정책

동남구 녹색어머니회 회장
양 은 선

1. 무분별한 아파트 신축보다 전원주택 혹은 빌라형 주택 건축

- 한정되어 있는 인구에 많은 아파트를 신축하다보니 공실인 아파트가 많으며 위로만 높이 짓다보니 숨이 막힐지경입니다. 삭막할 지경이지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는 알고 지낼까요? 동남구는 좀 차별화하여 가족같이 지낼 수 있는 전원주택형 마을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마을 속의 마을을 만들어 그 안에 노인정, 유아 보육시설, 부녀회, 작은 텃밭등을 형성하여 여러 계층이 함께 할 수 있는 타운을 설립했으면 합니다. 원도심에는 힘들더라도 조금만 벗어나면 신계리, 병천, 목천 등 동남구로 이사오고 싶은 분들이 분들이 많아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2. 버스 노선 개선입니다.

- 자차로 이동하면 집과 학교의 거리가 5분 혹은 10분 내외이지만, 시내 버스를 이용하면 1시간여 이상 걸리는 곳도 많습니다. 대도시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마을 버스를 만들어 달라하면 실효성을 따시지겠죠? 나라면... 내가 버스를 타야하는 학생이라면.. 1시간 걸리는 거리를 조금 돌아서 30분안에 목적지에 갈 수만 있다면 버스를 이용하지 않을까요? 집과 학교와의 거리 뿐 아니라 현 천안시 시내버스는 직산에서 병천을 가려면 신부동으로 나와야 환승을 할 수 있습니다. 서북구(입장, 성거, 성환등)에서 동남구로(목천, 병천, 동면, 광덕등). 동남구에서 서북구로. 환승은 터미널에서 해야하죠. 중간에 환승할 수 있는 곳이 없다보니 신부동은 버스와, 택시, 승용차들로 늘 복잡한 곳이 되어있습니다. 환승시간도 줄이고, 이동 시간도 줄일 수 있는 버스 노선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또한, 동남의 작은 학교에 스쿨버스를 만들어 주십시오. 먼거리 중학교에 배정이 되었다고 울고 체념하기 보다 과밀이 된 학교보다 스쿨버스가 있어 더 편히 등·하교를 할 수 있는 학교에 다닌다는 자부심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3. 특색 있는 교육, 체육활동을 만들어 주세요.

- 천안에는 여러 나라에서 한국으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한 학교에 제 2 외국어 한가지씩 초등 6년을 배우고 졸업할 수 있다면 일부러 외국 유학을 나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어는 3학년이면 배우는 기본이 되었으니,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초등학교 3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총 9년을 배운다면 진로 결정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합니다.
- 학교마다 특기 체육활동이 있었으면 합니다. 천안 남산초, 북중 야구. 천안초, 성거초는 축구. 월봉초 배드민턴, 용곡초 탁구, 병천초 양궁..... 수영(천안초 예정),태권도(천성중), 천안여중(사격), . . 하고 싶은 운동을 하기 위하여 다른 시, 군으로 이동하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짝을 보았어도 중학교, 고등학교 운동부가 없어서 혹은 입학정원이 적어서 타 시 .도로 전학을 가는 일도 여럿 보았습니다. 연계도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초등학교에는 없는데 중학교부터 있는 운동부도 있습니다. 부모가 지식이 없으면 그 학교에 지원 못하고 개인 사비를 들여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인재를 발굴하는 측면에서 미래에 투자하는 측면에서 운동부를 다양하게 유지 하였으면 합니다.

4. 동남구에도 대안학교를 만들어 주세요.

- 초등학교, 중학교가 의무 교육이라는 이유에서 적응 못하는 아이들을 외면 하지 마시고 대안학교를 만들어 그 아이들에 맞는 교육을 시켜주세요. 과밀된 교실에서 획일화된 교육으로 힘들어 하는 아이들에게 탈출구가 되어줄 대안학교를 설립한다면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여러 강력범죄들이 줄 것 같습니다. 정학 당했다가, 유급 당했다가, 자퇴했다가 다시 똑같은 곳으로 돌아가 같은 범죄를 반복하는 것 보다는 다른 교육으로 세상에 적응 할 수 있는 아이로 변화시킨다면 타 시.도에서 동남으로 이사오시지 않을까요?

짧은 소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오고 싶은 천안 동남구를 위한 변화하는 학교정책

천안시 도시재생과장

안 동 순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Blank lined paper for writing.

이사오고 싶은 천안 동남구를 위한 변화하는 학교정책

청수고 학부모회장

김 현 속

안녕하세요~

모두가 살고 싶은 천안 동남구 원도심을 위한 학교정책 토론회에 나온 학부모 김 현속입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1학년 아이를 두고 있고, 아이들의 교육에 여러분들 만큼의 관심을 갖고 있는 아줌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저는 학부모 입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점, 필요한 점을 말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족은 6년 전 천안으로 이사를 왔기에 이 주제를 받고 그 당시를 다시 회상해보았습니다.

이사 오기전 천안에서 좋은 초등학교는 어디인가요?라고 네이버씨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친절한 네이버씨가 알려줍니다.

몇 개 학교를 추려, 학교 사이트를 찾아가 학교별 인원 및 교장선생님 교육정책, 방과후 프로그램을 살펴보았습니다. 제 기준으로 좋은학교가 많더군요. 지도로 학교 주변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니, 주변 인프라도 좋고, 괜찮은 중학교도 있어 안심하고 이사왔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집근처 중학교에 배정을 받지 못하고 5지망으로 지원한 원도심 중심에 있는 중학교를 작년까지 다녔었습니다.

60~70%가 읍.면 지역 및 1차배정에서 탈락한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같은 입장의 구성원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교사들입니다.

교사들도 1지망으로 이 학교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1학년때 한 선생님께서 “오늘 친구들 모임 있는데 너네들 때문 창피해서 이 학교에 근무한다는 소리를 못하겠다”

또 다른 일화. 학부모와 부장선생님들과의 회의때, 선생님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부장선생님~ 이 학교 1차로 지원하셨나요?”라는 물음에 “내가 미쳤어요. 서북구 지원했다 떨어져서 할수없이 왔죠~”라고 하시더군요.

주위에서 공립학교인 원도심에 있는 중학교로 배정을 받으면 전부 걱정부터 한다고 합니다. 충남 타지역에서 천안 입성을 위해 최단기간 근무후 선호지역으로 이동하려고만 하니 일부 교사들의 소속감이나 책임감이 타 학교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을 포함 이 학교 아이들은 학교안에서 정말 행복한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더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이 학교는 안타깝게 아직까지는 학부모들이 이사가고 싶은 학교는 아닙니다.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고 교사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학부모들이 이사가고 싶은 동네의 학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낙후된 원도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사오고 싶은 지역의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지만 있어서는 안되고 구체적인 개혁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도심 지역의 교육개혁을 바라는 마음으로 3가지 의견을 말하려합니다.

첫째. 원도심학교 교장공모제 실시입니다.

개혁을 이루려면 학생·교사·학부모 모두 중요하지만 이끌어가는 수장의 의식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증된 인물로 보장된 4년의 기간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에서도 교장공모제로 이미지가 바뀐 학교를 봤기에 의견을 내어봅니다.

둘째. 우수 교사확보를 위해 원도심지역 학교 근무시 혜택부여입니다.

일정기간 원도심학교에서 근무한 교사에게 차등점수 부여나 천안시내 근무기간 연장의 혜택을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원도심학교에서 일정 성과를

넌 교사에게 부여하는 구체적인 혜택 체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개발, 아이의 교육 능력 개발 등이 있을 수 있겠죠.

일정 기간동안 근무하며 교사는 꾸준히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고 아이들도 선생님과 성과를 내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셋째.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도시에서는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마을과 학교가 같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시설을 활용해 마을 사람들이 함께 교류하거나 마을의 인적자산을 학교가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다중언어 중점학교 선정입니다.

동남구 원도심학교에는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 우수 강사진도 있을테니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초·중학교를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외국어 교육환경을 만들어 고등학교·대학교까지 연계하여 하나의 교육자산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중언어는 학교외 지역주민들과의 연계도 될 것 같습니다.

학교시설을 활용해 마을과 만나는 것은 천안초 수영장활용 같은 것을 얘기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동등하고, 행복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순히 도심 기능이 쇠퇴되었다고 해서, 학교에 저소득층 비율이 높다고 해서, 원도심 학교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등한시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와 아이가 함께,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며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세 가지 약속으로, 작은 변화만으로도 학생과 선생님이, 학교가, 나아가 원도심 지역 환경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은 평범한 아줌마 김 현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하지 않는 교육, 이대로는 안된다

정명근미래교육연구소장

정 명 근

1.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흙수저로 신분이 결정된다.

왜 학교에 다녀야 할까? 왜 공부를 하는가? 무엇을 왜 배워야 할까? 세상은 많이 변했다. 알파고로 통용되는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가야 할 시대가 되었다. 많은 직업이 사라질 것이다. 요즘 학생들은 더욱 100세 시대라는 말이 현실화되는 세상에서 살아갈 것이다. 많은 직업은 사라지고 수많은 길어질텐데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퇴임할 때 많은 사람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예를 들어 기계공학과에서 국어 영어 수학이라는 과목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이었다. 대답은 놀라웠다. 국어는 필요지 않고 영어는 기계 용어 때문에 조금 필요할 것 같고 수학은 필요할 것 같다 라는 대답이었다. 그렇다면 필요없다는 국어 영어 과목을 왜 배우고 있을까? 왜 많은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이렇게 대답했을까? 문제는 배움을 오직 교과목(국, 영, 수) 수업이 상급 진학을 목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필자는 정말로 대학에 있는 모든 학과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을 뽑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국어과목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학에 가서 전공 교과목을 공부하는데 내용을 읽어내지 못한다면 어느 학과이든 어떻게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또한 많은 학과 관련 전공 내용들을 깊게 다양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당연히 영어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는 지식을 습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농업 분야에서도 신기술이 접목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6년 이상 영어교육을 하고도 영어 말 한마디 못하고 영어 책 한권도 읽지 않는 영어를 왜 가르치고 배워야하는지 모르겠다. 또한 수학도 개념을 정리하여 모든 곳곳에 활용되고 응용할 수 있는 수학 교육이 아니고 기계적으로 문제풀이에 몰두해 있다면 그래서 사탐과, 과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면 많은 직업이 사라지는 100세 시대에 살아가야 할 요즘 학생들에게 지금의 교육이 왜 필요한지 반문하고 싶다. 한 줄세우기 사교육 열풍에 어릴 때부터 학생들은 지쳐있고 고등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되고 있는 많은 수행평가와 과제연구 등으로 학생들은 밤늦도록 파김치가

되어있다. 초, 중학교 때 책 한권 제대로 읽지 않는 학생들이 영어 원서 한권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학습과 활동들을 제대로 소화하고 따라갈 수 있을까? 잘 적응하지 못하고 성적이 부진하면 학부모의 해결 방법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 또다시 학원 등으로 이어지는 사교육에 학생들이 내몰리고 있다. 원인 분석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성적올리기 학습의 형태로 내몰리며 또다시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졸 수 밖에 없고 학교가 싫어지고 공부에 자신감을 잃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이른 시기에 공부에 지친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한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학생들이 초중고를 다니는 동안 학부모들은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출했을까? 그 많은 비용을 들이고 학생들에게 정말로 지출된 비용만큼 제대로 배웠을까? 이제 더 이상 학생들에게 미래가 없는 교육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 학생들은 잘못이 없다. 모든 학생들은 타고난 재주를 갖고 태어난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수가 없다. 나는 오직 지구상에 혼자일 뿐이다. 모두가 소중한 존재이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 서로의 도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단지 부모를 잘못만났거나. 학교교육 시스템이나. 환경적 요인 등으로 격차가 벌어졌을 뿐 이다.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필자는 36년의 교육 경험을 통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우수하다는 학생들 부모의 직업 분포를 통해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학업적 역량 차이가 부모의 능력에 기인한다면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회 분위기도 대학을 나와야 대접 받는다는 분위기가 확실한데 태어날 때부터 양극화로 이어지는 평생 짊어지고 가야할 차별적 양극화는 결국 대졸 미취업생 증가, 결혼 포기, 출산 포기로 인한 저출산, 또다시 이어지는 양극화로 대물림하는 현대판 신분 차별제도가 아니겠는가? 이는 개인의 불행일 뿐 아니고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웃 중국은 1,000만명의 출생자 수를 갖고 있다. 우리는 40만이 무너지고 30만도 안되는 출산을 목전에 두고 있다. 현실화되었다. 정말로 국가적 재앙이다. 30만 40만을 국가 인재로 키워내도 부족한 인재가 아닌가?.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학업포기자가 나오

고 많은 학생들이 외면 받는다면 과연 이 학생들이 가야할 곳이 어디라는 말인가? 이제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된다. 특히 소외 받는 가정이나,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가정의 학생들에게 더 많은 사회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위에서 언급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올바른 교육만이 양극화의 폭을 줄일 수 있다. 변해야 한다. 학교도 교사도 학부모도 변해야 하고 대학 당국도 학생부종합 전형을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 그래야 교육이 살고 대학도 살고 학생의 미래도 있을 뿐 아니고 한국의 미래도 있다. 그 시발점이 초 중등교육의 독서교육이다.

2. 알파고 시대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

독서교육은 정말 중요하다. 또한 독서 교육은 사교육없이 충분히 학교에서도 가능하다. 영어 교육도 충분히 학교에서 가능하다, 영어 교육에서 가장 좋은 교재가 애니메이션 등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다. 천안도 고교평준화가 실시되고 있다. 현재 전국의 대부분 고등학교가 평준화 되어 있다. 왜 평준화를 실시하는가? 학생들에게 상급 학교 진학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는가?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 평준화 이후 변화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평준화 이전과 다를 바 없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왜 평준화를 했을까?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무엇이 옳은지 제시하는 사람도 없다. 그 피해는 학생 몫이다. 평준화 정말 좋은 제도이다. 지금도 찬성한다. 평준화된 제도 하에서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문제풀이와 점수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학생들이 고등학교 또는 대학 진학 후 학생들이 전공하고 싶은 분야에서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되어야하는 것이다. 많은 책도 읽고 영어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운동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많은 여행을 통해 시야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부모를 잘 만나 태어날 때부터 준비되어 있는 금수저 학생들이야 무슨 문제가 될 수 있겠는가? 문제는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더욱 많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행복한 미래는 단순히 학생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존립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우리 모두가 책임을 느끼고 함께 고

민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학생들의 학력 수준 차이가 지역적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면 이는 더욱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구도심 특히 동남구 지역 학생들의 상당수가 학업 역량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현실 속에서 이대로 바라만보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의 지역적 한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직무유기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양극화의 폭을 줄여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행복하다. 젊은이들이 꿈을 갖고 활기차야 한국의 미래도 있을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학생들이 방황하며 미래가 없는 삶을 살게해서는 안된다.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고 제대로 공부해서 학생 본인이 정말로 하고 싶은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 간 서로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더욱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경쟁해야 한다. 저 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이제 제대로 된 교육을 미룰 수 없다. 공부하고 싶은 학생, 제대로 가르치는 학교, 제대로 공부한 학생을 길러 내야 한다. 학생들도 공부하고 싶지 않은 학생을 억지로 학교에 가두어놓고 마냥 대학을 진학시켜서 고학력 떠돌이 인생으로 전략하게 해서는 안된다. 모든 학생들은 타고난 재능이 있다. 꼭 대학을 나와야 재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일부는 지구 곳곳에서 땀 흘려 일하고 일부는 세계시민의 일원으로 일하고 있고 일부는 산업 현장에서 최고의 쟁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이 다양성을 인정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이 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다. 수능시험 폐지를 권장하고 학교 시험은 절대 평가로 하고 대학은 1년 내내 학생을 면접으로 선발하고 선발 이후에도 대학 진학 후 좀 더 깊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생마다 대안을 제시해 주어 수능 시험이 끝나자마자 그동안 배운 모든 책이 쓰레기 더미에 쌓이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

3. '인구절벽'? 교육이 변해야 한다

현재 고1 학생의 출생자 수는 49만 여명이다. 중도탈락자와 해외이주자를 빼면 46만 여명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다. 2018년 대입 진학률은 68%이다. 대략 32만 여명이 대학진학 예정자이다. 재수생 8만 여명이 진학할 경우 대략 40만 내지 41만 여명이 대학 진학 예정자 수이다 대학

정원은 작년 기준 대략 52만 여명으로 10만명 이상의 학생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 수는 더욱 심각하다. 출생자수가 43만 여명으로 현재 중1 재학생 수가 41만 5천여명으로 이 경우 고등학교 예정자 수가 대략 40만 여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면 대학진학 예정학생은 진학을 70%일 경우 대략 28만 여명으로 추산된다. 서울권 학생 정원이 7만 5천명과 지방 국립대 7만 5천명 교육대학 4000여명 등 16만 여명이고 수도권 대학 (79개 대학)정원이 9만5천여명으로 지방대는 폐교 수준에 이를 정도가 됐다. 곧 불어 닥칠 재앙 수준이다. 그 여파는 상상을 뛰어넘을 것이다. 먼 훗날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현실이다. 아마 대학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천안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학생들에게 상급학교 진학만을 위한 공부가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모든 학생이 마음만 먹으면 대학진학을 할 수 있다. 굳이 대학진학을 위해 불필요한 한 줄세우기 성적, 문제풀이에 연연해야할 필요가 없다. 진정으로 학생개개인이 꿈을 찾아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습과 학교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 이상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공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즉, 대학 진학만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학생들의 꿈을 찾아주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하게 해서는 안된다. 오직 지구상에 유일한 존재인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을 찾아내고 키워주어야 한다. 학교 교육을 통해 그 꿈이 빛날 수 있게 해야 한다. 한 줄 세우기 교육을 더 이상해서는 안된다. 학생도 가정도 국가도 불행이다. 이제 다시 공교육이 되살아나야 한다.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공교육이 못하면 지방자치단체라도 해야 한다. 올바른 교육을 통한 학생 성장만이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다.

학부모, 선생님, 학교가 변하면 학생들이 행복하고 학생이 행복하면 가정 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희망이라는 말씀드리며 오직 제대로 된 교육만이 양극화의 답이며, 알파고 시대에 대한 유일한 답도 교육이요, 인구절벽 시대에 대한 답도 올바른 교육만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충남 다문화교육 정책과 천안 동남구 다문화교육 특성화 방안

충남교육청 학교교육과 장학관
이 병 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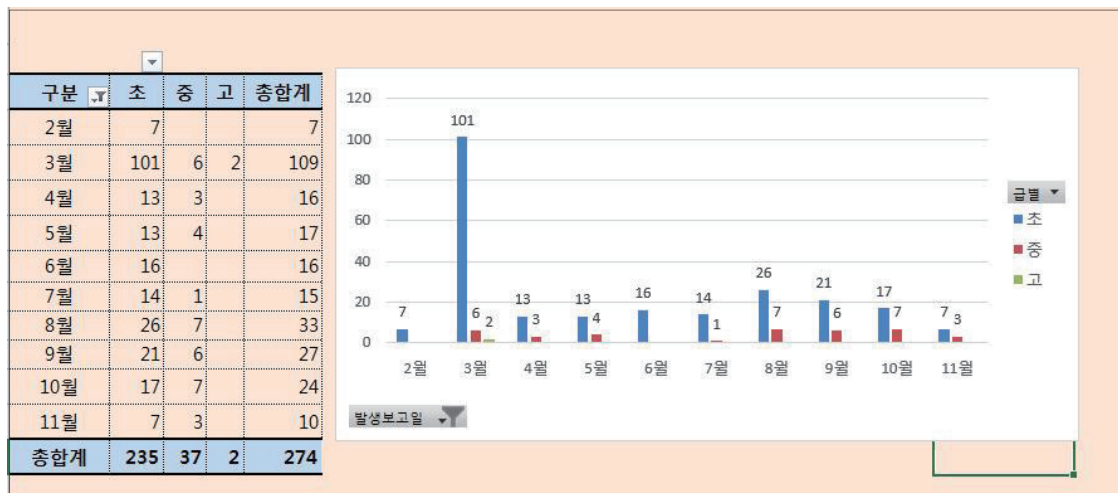
I. 충남 다문화교육 추진 배경

2018년 4월 1일 현재 교육부 통계자료를 보면 충남 도내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9,300명으로 전체학생 대비 3.4%이며, 매년 약 14%씩 증가하고 있다. 학교급별 학생 분포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초등학교에 다수 학생이 재학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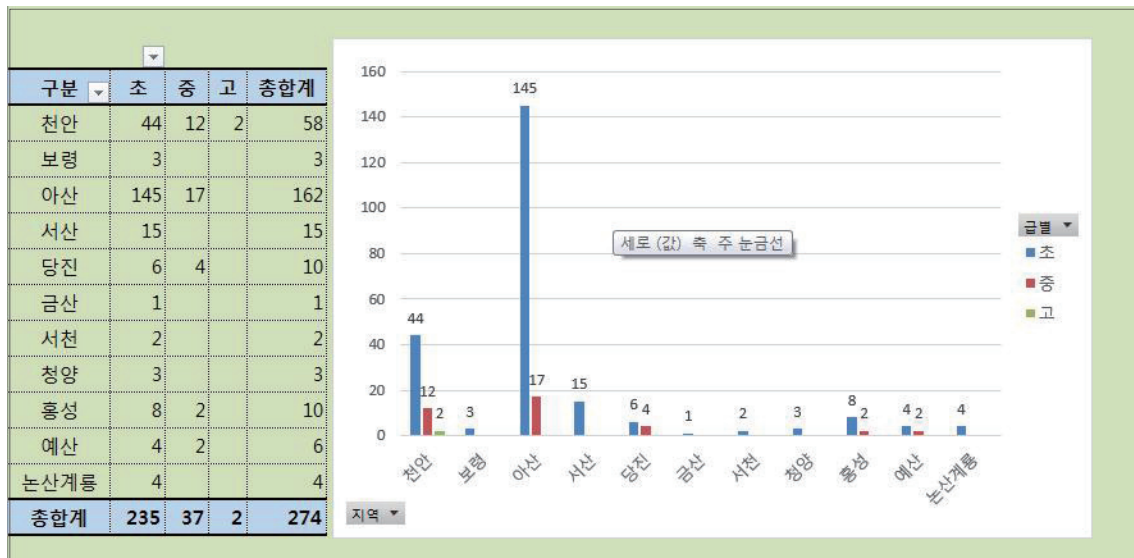
<표 1> 연도별 충남 다문화가정 학생 수

구분	유	초	중	고(특수)	합계	증감	증감율
2015	1,079	3,825	839	579	6,322	—	—
2016	1,214	4,659	932	591	7,396	1,074	17%
2017	1,228	5,321	1,021	616	8,186	790	11%
2018	1,246	6,143	1,232	645(34)	9,300	1,114	14%

다문화가정 학생이 가장 많은 지역은 천안(2,012명), 아산(1,462명), 당진(828명) 순이며, 학생 비율은 청양(10.9%), 금산(10.6%), 부여(7.8%) 순으로 높다. [그림1] [그림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도입국 학생은 3월 신학기 시작 시기뿐 아니라 매월 꾸준히 편입학하고 있으며, 특히 다문화가정 밀집 지역 소재 학교는 여러 가지 새로운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책무성을 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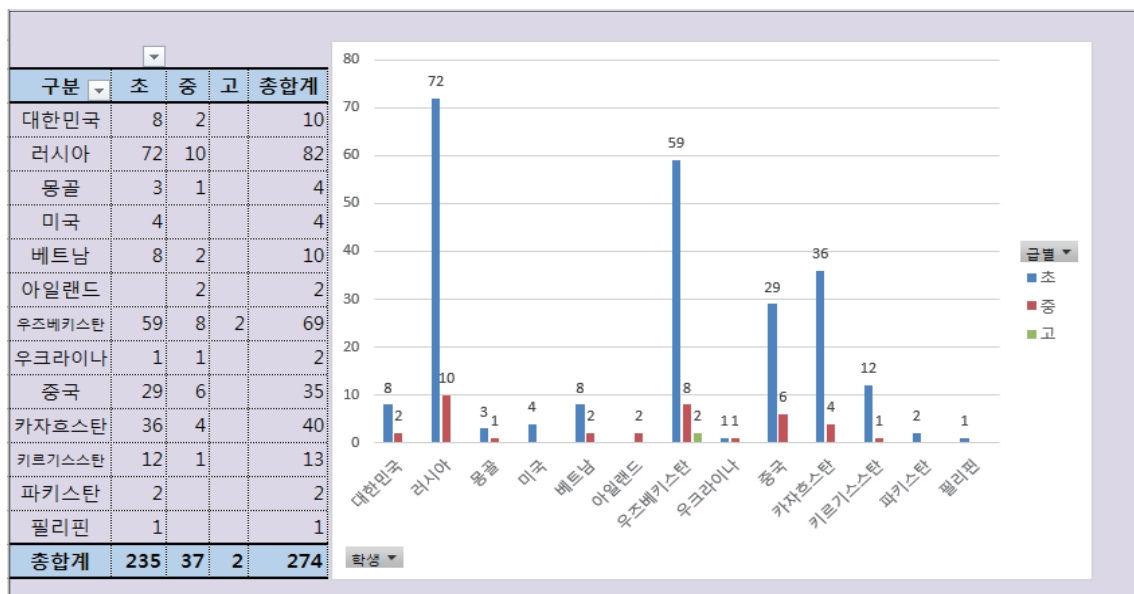


[그림 1] 2018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자녀 발생 월별 현황_2018.11.현재



〔그림 2〕 2018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자녀 발생 지역별 현황_2018.11. 현재

이처럼 중도입국 및 국내거주 외국인 가정 자녀수의 급증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도 학습자중심 맞춤형 교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요구받고 있다. 모든 교육의 영역에서 기본적으로는 학생의 사적 영역을 존중하고 가정의 배경이 학생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국제결혼 가정인가 외국인 가정인가, 국내 출생인가 국외 출생인가를 구분하여 조사하고 거주지와 거주기간, 생활 여건 등 학생의 배경 정보를 파악하고 분류하는 것은 각각이 지닌 특성이 매우 다양한 만큼 그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방법을 섬세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림 3〕 2018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자녀 발생 국적별 현황_2018.11. 현재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증가 속도에 맞추어 교육기관 시설 확충이나 교직원들의 다문화가정 학생 지도를 위한 전문성 확보, 학생과 학부모의 다문화이해와 수용성 제고 등이 병행하여 나가야만 교육의 내실을 추구할 수 있으나 현실 속에서는 이러한 모든 요소를 일시에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교육 행정기관과 학교 간, 도시 지역과 농촌지역 간, 학교 상호간, 학교와 가정 간 다문화교육을 위한 인식 차이와 정보 전달의 격차 해소에도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적응력을 높이고 교원의 과중한 업무 해소를 위해 지역별 학교별 특성에 맞는 각종 지원 사업 추진에 힘을 쏟고 있으나, 중도입국학생과 외국인가정 학생이 급증하는 일부 지역 학교와 농어촌 벽지 학교 등에서는 구성원 각각이 처한 상황의 다양성과 지역교육청의 장기적 학교신설 계획, 예산 편성의 미비 등으로 현장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출생이나 경제적 배경 차이 여부를 막론하고 다문화가정 학생 한 명 한 명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해야 하는 일은 교육청이나 학교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4.4., 2013.3.22.>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 교육)**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1.>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1.>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 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15.12.1.>

- ④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

▶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문화교육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정책의 기본 방향
 2. 학생 교육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충청남도조례 제4371호, 2018.7.10. 일부개정>

이러한 법률적 기반을 바탕으로 교육부 시범사업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2014.12.24.)운영 계획, 교육부 교육 소외계층 지원 사업 계획(2017.11.8.), 교육부 교원의 전문성 강화 사업 추진계획(2017.12.),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교원의 전문성 강화사업 추진계획(2017.12.20.)등과 2018 충남 주요업무계획(2017.11.17.)을 반영하여 올 한해 우리교육청의 ‘2018 다우리 다문화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였다.

우리교육청이 3년 연속으로 운영하고 있는 충남다문화교육센터 사업이나 예비학교, 중점학교, 연구학교, 다문화유치원 등의 다문화정책학교 운영, 각 시군 교육청별 다문화전문상담사 활용, 지역 대학 연계 다문화청소년 글로벌브릿지 사업, 입학적응 및 학력 심의위원회 운영, 외국 출신 부모 나라 언어와 한국어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수용성 교원전문성 함양 의무 이수 등은 운영 방식이나 규모가 다를 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이다.

특히, 2019년부터는 신규사업으로 중도입국과 외국인 가정 학생의 학교적응력 향상과 한국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천안, 아산 2개 지역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비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비학교 교원 인센티브 강화,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도입국 및 외국인 가정 학생 대상 포괄적 지원 방안 등을 모색 중이다.

II. 충남 다문화교육 정책

1. 다문화 친화적 교육환경 구축

가. ‘충남다문화교육센터’ 4년 연속 운영

나. 중도입국자녀 및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예비학교 한국어학급 운영
다. 한국어교육 방법 개선, 부적응 학생 지도 방안 공유 ‘다문화교육 교사 연구회’ 운영
라. 학령기 아동의 교육기회 보장과 공교육 편입 지원을 위한 취학 전 설명회 개최
마. 학생교육 및 적응 지원 제고 유관기관 협약 및 네트워크 구축

－세이브더칠드런, 지역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다음세대재단, 순천향대특수아동교육연구소, 상명대국어문화원, 천안모이세 등

2.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문화교육 추진

가.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교의 특성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정책학교 운영 확대

※ ‘17년 117교 → ‘18년 123교

기 관	주요 내용
예비학교	▶ 20교 20학급 (초16, 중4) ▶ 중도입국자녀 및 특별지원이 필요한 다문화가정 학생 자녀 ▶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집중 운영
	▶ 찾아가는 예비학교 운영 － 일반학교에 편입학한 중도입국자녀 대상, 한국어 강사 등 파견
중점학교	▶ 85교(2년 연속 지정·운영) ▶ 모든 학생의 다문화 인식제고를 위한 반편견 상호문화교육 등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프로그램 운영
연구학교	▶ 1교 (2년 연속 지정·운영) ▶ 다문화가정 학생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통한 자기주도적 진로설계능력 신장 방안
다문화 유치원	▶ 17개원(공립 13, 사립 4) ▶ 언어 및 기초학습 지원으로 다문화 유아의 실질적인 교육기회 평등 지원

나. 원격 화상강의 시스템 활용 다문화학생 한국어 교육 <2018 신규사업>

다. 교육과정 중심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를 위한 다문화교육 계획 수립·추진

- ▶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다문화교육 요소 추출
- ▶ 학생의 흥미 유발 및 다문화 감수성 프로그램 구안·적용
-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학기당 2회 이상, 회당 20분 이상 다문화이해교육 실시

라. 다문화가정 학생 한국어교육 지원(주당 10시간 내외, 12주 한국어교육 운영비 지원)

마. 다양한 문화 체험의 달 운영

바. 다문화 교육자료 개발·보급

3. 다양한 꿈·끼 계발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 가. 나눔과 배려의식 및 특기 신장을 위한 다우리 학생동아리 운영
- 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진로·직업교육 기회 제공
- 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 제고 및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다문화가정 학생 대학생 멘토링 운영
- 라. 긍정적 자아정체감 형성 및 의사소통 능력 강화를 위한 이중언어교육 지원
- 마.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과 나눔 실천 다문화가정 인재 육성 해외교류 추진

4.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다문화교육 추진

- 가. 유관기관과 유기적 연계로 효율적인 다문화 이해교육 전개
- 나. 교원의 다문화 인식개선 및 이해증진 노력
 - ▶ 다문화 정책학교 관리자 워크숍(1학기), 일반학교 관리자 워크숍(2학기)
 - ▶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하는 다문화 역량강화 교사 워크숍
 - ▶ 다음세대재단 연계 문화 다양성 교사 워크숍
 - ▶ 교원 대상 원격 직무연수 실시
- 다. 학부모 협조 및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실시
- 라. 다문화가정 대상국가 교육교류 추진
- 마. 다문화교육 공동캠페인 및 홍보 강화
- 바. 다문화가정 학생 전문상담 강화
 - ▶ 지역교육청별 전문상담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 실시
 - ▶ 지역 특성에 맞춘 개별 인력 활용 위임→통역, 상담, 업무지원 등 확장

5. 다문화교육의 과제

- 가. 급증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역별 특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고 지원할 것인가?
- 나. 다문화가정 학생의 비율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와 학교 구성원 간 문화적 가치 충돌 및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 다. 학교 내 기피업무인 다문화교육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
- 라. 다문화가정학생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 마.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은 ?

Ⅲ. 동남구 다문화교육 특성화 방안

1. 동남구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 기준: 2018.4.1. 교육통계

구분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학생 수	유형별 학생 수			비고
			국제결혼		외국인가정	
			국내출생	중도입국		
1	천안초	33	11	6	16	
2	천안중앙초	12	8	0	4	
3	천안남산초	42	31	2	9	
4	천안일봉초	25	22	0	3	
5	천안청수초	10	8	0	2	
6	천안신안초	17	14	0	3	
7	안서초	13	9	1	3	
8	천안봉명초	10	9	0	1	
9	천안구성초	20	19	0	1	
10	천안봉서초	24	19	2	3	
11	천안신부초	61	16	6	39	예비
12	천안신용초	16	16	0	0	
13	천안신촌초	27	18	3	6	예비
14	천안용곡초	10	7	2	1	
15	천안용소초	8	6	2	0	
16	천안청룡초	10	9	1	0	
17	천안삼거리초	23	21	1	1	
18	천안청당초	4	2	2	0	
19	천안새샘초	19	13	3	3	
20	천안가온초	11	4	4	3	
21	풍세초	18	18	0	0	
22	용정초	11	11	0	0	
23	미죽초	3	3	0	0	
24	광덕초	0	0	0	0	
25	행정초	6	5	1	0	
26	보산원초	6	6	0	0	
27	목천초	14	13	0	1	
28	신계초	37	33	3	1	
29	도장초	3	2	0	1	
30	천안부영초	25	24	0	1	
31	신흥초	21	20	1	0	
32	위례초	3	3	0	0	
33	은석초	10	8	0	2	
34	성남초	3	3	0	0	
35	신사초	8	8	0	0	
36	수신초	11	10	1	0	
37	병천초	31	26	2	3	
38	천동초	4	3	1	0	
39	천안중앙초	0	0	0	0	
계		609	458	44	107	

구분	중학교	다문화가정 학생 수	유형별 학생 수			비고
			국제결혼		외국인가정	
			국내출생	중도입국		
1	천안북중	28	11	7	10	(예비)
2	천안여자중	13	12	0	1	
3	천안동중	11	6	4	1	
4	천안신방중	7	6	0	1	
5	천안용곡중	6	5	1	0	
6	천안새샘중	5	5	0	0	
7	천안가온중	14	12	0	2	
8	병천중	10	10	0	0	
9	목천중	4	3	0	1	
10	천남중	0	0	0	0	
11	천안계광중	6	5	0	1	
12	복자여자중	13	12	0	1	
13	천성중	8	2	4	2	
14	천안서여자중	5	3	1	1	
15	광풍중	5	4	0	1	
계		135	96	17	22	

구분	고등학교	다문화가정 학생 수	유형별 학생 수			비고
			국제결혼		외국인가정	
			국내출생	중도입국		
1	천안제일고	12	9	1	2	
2	천안공업고	15	13	2	0	
3	천안중앙고	8	7	0	1	
4	천안여자고	9	9	0	0	
5	병천고	10	9	1	0	
6	목천고	2	1	0	1	
7	천안청수고	7	7	0	0	
8	천안고	3	3	0	0	
9	복자여자고	0	0	0	0	
10	천안여상고	26	23	1	2	
11	북일고	2	2	0	0	
12	북일여자고	3	2	1	0	
계		97	85	6	6	

천안시 동남구	전체 다문화가정 학생	국내출생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비고
계	841	639	67	135	

2. 동남구 다문화가정 인재 육성 특화 방안

가. 다문화가정 학생 적응 지원체제 구축

- ▶ 현재 예비학교 한국어학급 중심의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 이해교육 시스템 확장

구분	내용	비고
단기	-다문화가정 학생 특성을 고려한 위탁 교육기관 지정, 운영 -지역 유관기관 역할 분담 및 지원단 운영 (구청, 동사무소, 복지센터 등)	-2019년 천안, 아산지역 시범운영 -지역 대학 한국교육원 인력풀 활용
중장기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학생 공교육 진입 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언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가칭 ‘입학 준비교’) 설치	- ‘입학 준비교’ 프로그램 의무 이수를 위한 조례 제정

- ▶ 다문화가정 학생 진로직업 교육 지원 체제 마련
 - 지역 기업체 연계 방과후 프로그램,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등 운영
- ▶ ‘학교 체육 특성화를 통한 전반적인 생활 체육인의 육성’이라는 발제자의 제안은 다문화가정 학생 특성 상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책

나. 세계시민 교육과 융합한 다문화 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

- ▶ ‘다문화’를 강조하다보면 ‘함께’ 보다는 ‘분리’ 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크므로 세계시민교육, 외국어교육과 연계한 교육 환경 조성 필요
 - 지역 대학 인력 활용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다문화가정 학생과 비다문화가정 학생의 융합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이스라엘 중부 지역에 유대계와 아랍계가 평화의 공존을 꿈꾸며 건설한 작은 마을 ‘네베 살롬(평화의 오아시스)/ 와하트 알 살람’
 - 지역단위 국제교류 사업 활성화 지원으로 학교 부담은 줄이고 교육력은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지자체 지원>
 - 발제자의 ‘외국어교육 인재 양성을 통한 다문화 특화와 세계시민육성’은 다문화가정 학생만을 위한 접근보다 전체 학생 대상 사업이 바람직

- ▶ 지역교육청 업무담당자와 지역 다문화교육 전문가 조직체 상시 운영
 - 학교 요청 시 적극 대응 체제 구축
 - 인력 지원(상담, 언어번역, 통역, 원적학급 활동 보조, 체험학습 보조, 방과후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다. 동남구 주민 다문화 수용성 강화

- ▶ 다문화교육은 우리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시민(학부모) 인식 개선 교육
- ▶ 주민자치센터 중심 다문화 학습 공간 운영 및 글로벌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 ▶ 부모, 자녀 동행 다문화 봉사동아리 활동 활성화
 - 자주 만나고 함께 어울리는 과정을 통해 다문화 수용성 증진 및 자존감 향상 기대
- ▶ 생활 속 비차별, 반편견 문화 조성 페스티벌, 장터 운영 등 사업 추진
- ▶ ‘내가 먼저 손 내밀기’ 다문화가정 이웃 맺기 사업
- ▶ 충남교육청이 추진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추진

☆ 일본의 지역사회 협력 사례

▷ 다문화공생추진에 관한 연구회

- 2005년 다문화공생을 추진하고자 당면 과제 해결방안 모색과 이후 필요한 대처방안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보고서를 접수하여 총무성 ‘다문화공생추진플랜’을 책정·통지하여 지방공공단체가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의뢰함
- 2009, 2010년 ‘다문화공생추진에 관한 의견 교환회’ 개최, 외국인집중 거주지역 중심 지방공공단체의 선진적 대처 방법에 대해 각 담당자를 중심으로 의견 교환 실시

▷ 지방자치단체 전체 약 40%가 다문화공생에 관한 지침·계획 책정

- 외국인주민 1.6%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시,군,구 82% 단체가 책정

▷ 외국인과 공생사회 실현을 위하여 외국인 집중 거주 지역에 외국인 본인 및 동반체류자의 일본어교육, 외국인 자녀의 교육 및 사회보장, 외국인 취업지원, 주택 등 「주민」으로서의 관점으로 검토

□ 참고자료

충남교육청(2018). 주요업무계획.

충남교육청(2018). 교육통계자료_2018.4.1기준

충남교육청(2018). 충남 다우리 다문화교육 운영 계획.

충남교육청(2018).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교재.

교육부(2017).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사업설명회 교재.

교육부(2017).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담당교원 워크숍 교재.

교육부·한국다문화교육학회(2016). 다문화교육 학술 포럼 교재-한국 다문화교육 10년의 성과와 향후 정책과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2016). 세계시민교육 학교와 만나다, 도서출판 기억+친친박스.

김상천(2018).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육정책의 현황과 발전 방안,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다문화가정 학생 유형 및 특성 이해자료

- 다문화가정 생성배경에 따라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기타 난민가정으로 구분
-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출생지에 따라 △국내출생자녀 △중도입국자녀로 구분

국제 결혼 가정 자녀	국내 출생 자녀	■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이하 ‘결혼 이민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생활 한국어에 어려움은 적으나 일부 학생의 경우 학습 한국어 미숙으로 전반적인 기초학력 미달 경향을 보이거나, 다문화 학생임을 드러내기 꺼려하는 경향이 있음
	중도 입국 자녀	■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에 본국에서 데려온 자녀, 국제결혼가정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청소년기에 입국한 자녀 등 ■ 한국어 미숙 등으로 학교 편입학에 어려움이 있으며, 학교 입학 후에도 한국어 및 기초학력 수준이 매우 심각 ■ 비교적 연령대가 높은 10대 중·후반(중·고등학생)에 입국하는 경우가 많아 새로운 가족관계 갈등, 한국문화 적응, 정체성 혼란 등의 심리적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외국인 가정 자녀		■ 외국인 근로자 및 주재원, 유학생, 재외동포 등 외국 국적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일부는 불법체류 등으로 학업에 안정을 기할 수 없어,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이 미흡하여 한국어가 서툴고 낮은 학업성취도 경향을 보임 ■ 미등록 외국인 자녀의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75조에 따라 거주사실 확인만으로 초·중학교 입학이 가능
기타 난민 가정 자녀		■ 난민 인정자 자녀로 그 수는 많지 않음

<배려 실천Tip>

- ◆ 다문화학생은 행정 편의상 구분할 뿐 학생을 대상으로 호칭하지 않는다.
- ◆ 특히, 학교나 학급 등 일상생활에서 다문화학생으로 특정하여 호칭하지 않는다.

제 회 모

제 회 모